“세대 갈등, 연기적 사고로 ‘회통’ 길 찾아야”

이은영 교수, 화쟁적 불교철학상담 제시

‘갈등 해소 해법’ 학술세미나서
성찰 · 자비명상 · 실천으로 구성
“상실감의 적의 전환 회로 끊어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은 특정 세대의 관점을 절대화하거나 다른 세대의 관점을 배제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연기적 사고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회통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적대와 증오를 완화하는 인식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자비와 사무량심이 더해지면 서로 연대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다.”

이은영 경상국립대 인권사회발전연구소 학술연구교수〈사진〉가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불교적 방법론으로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9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이 개최한 ‘한국사회의 세대 갈등과 화쟁적 해법’ 학술세미나에서 ‘세대 통합을 위한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상실감과 인정의 문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세대 갈등을 가치관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를 고정된 실체로 구분하는 인식과 그 구분에서 비롯되는 정서의 문제로 바라보고 불교철학의 관점에서 이 같은 인지와 정서의 문제를 ‘삼독심’으로 연결했다. 세대를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과 자신의 세대만이 옳다는 고집은 ‘무지’, 자기 세대의 이익에 대한 집착은 ‘탐욕’, 다른 세대에 대한 적대와 혐오는 ‘증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대 갈등의 정서적 뿌리로는 상실감과 인정의 결핍을 꼽았다. 이 교수는 “청년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중장년은 현재의 자리를, 노년은 과거에 있었던 쓸모와 존중을 잃었다는 ‘상실’을 겪는다”며 “상실은 인정의 결핍에서 오는데 이는 세대를 서로 배타적인 실체로 보는 것, 곧 삼독 가운데 치(癡)”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세대의 몫에 대한 집착과 다른 세대를 향한 적의는 그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이기에 감정만 다스려서는 완화될 뿐 근절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서사가 어떤 조건에서 형성됐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지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견해나 주장이 저마다 처한 맥락 속에서 부분적 타당성을 지님을 인정하고, 대립을 일심의 지평에서 회통시키는 ‘화쟁’의 논리가 중요한 이유다.

이 교수가 제시한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은 성찰적 분석, 자비명상, 삶 속 실천의 3단계로 구성된다.

성찰적 분석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세대와 상대 세대의 서사를 연기적 관점에서 다시 읽도록 돕는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기각하거나 절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견해가 어떤 조건에서 형성됐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자비명상에서는 사무량심을 닦는다. 먼저 인정 결핍으로 상처받은 자신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를 상대 세대로 확장한다. 성찰을 지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랑과 연민, 연대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단계다.

삶 속 실천에서는 통찰을 일상의 선택과 행동으로 연결한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명료화하고, 그 통찰을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탐색한 뒤 실천을 점검하며 다시 마음을 닦는 순환적 과정이다.

이 교수는 “화쟁은 대화를 이끄는 논리를, 불교철학은 그 논리가 딛고 선 존재론 곧 무아와 연기와 가명의 이해를, 철학상담은 그것이 이뤄지는 형식을 제공한다”며 “화쟁적 불교철학상담은 각 세대가 겪는 실제의 상실감이 다른 세대를 향한 적의로 전환하는 회로를 끊음으로써 세대 통합을 위한 제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사무국장 정관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원효 대사의 화쟁은 저마다 지닌 타당함을 드러내 일심으로 회통하는 길이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 앞서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 곧 화쟁의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 잇따라 불교계 예방

김민석, 9월 15일 진우 스님 찾아
템플스테이 돌봄 활용 방안 제안
진우 스님, 장동혁에 “자비 정치”
상진 스님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불교계를 찾아 현안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민석 대표는 9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휴식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이를 돌보는 가족들은 본인들을 위한 케어나 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약자의 휴일’이라는 취지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쉬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 곳이 자연과 함께한 템플스테이다. 각 사찰이 전국에 있으니 더 효과적일 것 같다”며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하루 돌봄은 자원봉사자들이 케어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종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나들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김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 현황과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 특성을 고려한 검토를 당부했고, 김 대표는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김 대표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예방해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진 스님은 현재 태고종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며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일이라면 종단에서도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상진 스님과 태고종이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펼쳐온 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며 사회적 고립과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9월 16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국민의 삶과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서로 생각과 방향성이 달라 어렵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진영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먼저 국민들을 위해 다시 자비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은호 · 김내영 · 박지운 기자

진우 스님 “국가 안보만큼 마음 안보 중요”

9월 17일, 강건작 신임 청불회장에
“마음 튼튼해야 사회 통합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9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올해 7월 청와대불자회장으로 선출된 강건작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예방을 받고 “국가 안보나 국방만큼이나 마음 안보도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와 함께 국민 마음 안보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외부적 영향으로 마음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 안보가 튼튼하면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혜가 나올 수 있다”며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일에도 다투게 된다. 여유를 갖고 상대를 배려해야 오히려 자기 뜻도 관철될 수 있는데,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니 서로 갈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은 마음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실천으로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마음 안보가 튼튼할 때 사회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건작 회장은 “큰일이 가끔 생기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스님 말씀을 새겨 마음 안보를 잘 잡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이영수 청와대불자회 사무총장(대통령비서실 농림축산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내영 기자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 선출

9월 15일, 주지 후보 선출 산중총회
경우 스님 92 · 태효 스님 14표
“더 낮은 자세로 교구발전 매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제21대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이 선출됐다.

제2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완 스님)는 9월 15일 성보박물관에서 ‘본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선거인단 130명 중 107명의 구성원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경우 스님이 92표를 얻어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태효 스님은 14표를 얻는데 그쳤다. 무효표는 1표로 집계됐다.

이번 산중총회는 2015년부터 11년 동안 선운사 주지를 맡아온 경우 스님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8월 6일 교구장직을 사직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당초 기호 1번 태효 스님·기호 2번 종고 스님·기호 3번 경우 스님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산중총회를 하루 앞둔 9월 14일 기호 2번 종고 스님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태효 스님과 경우 스님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경우 스님은 당선 직후 소감을 통해 “한여름 밤의 꿈처럼 긴 꿈을 꾼 것 같다. 다시 교구장으로 나선 것은 개인적으로 몹시 어려운 선택이었다” 며 “여러 스님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는데, 교구 선후배 스님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고민도 깊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선운사 주지 소임을 보는 11년여 동안 늘 어제보다 나은 선운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구를 위해 뛰었고, 선운사와 대중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혼신을 다해 왔다”며 “다시 한 번 대중 스님들의 신임을 받고 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나누면서 교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로 선출된 경우 스님은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선운사 주지로 취임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